

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만찬

만찬 환영사

2015. 8. 24

뱅크스 클럽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위 원 회
임 종 룡 위 원 장

I. 환영인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가을을 문 앞에 둔 8월에

이곳 서울에서

임 웨이 키앗(YIP Wei Kiat) 싱가포르 대사님을 비롯한

아세안 각 국 대사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석을 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님

그리고 은행장님들에게도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5년 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동반성장을 해왔습니다.

* 1989년 부분(무역·투자·여행) 대화관계 수립, 1991년 완전대화관계 구축

1989년 82억 달러에 그쳤던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2014년에 1,380억 달러로

무려 1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서비스·투자 분야의

한-아세안 FTA 발효*를 계기로

양 경제권의 협력이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상품부문 FTA는 2007년 발효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은

그 어느때보다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III. 한국과 아세안 간 금융협력

한국은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은행(AIIB) 설립에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무보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21억불 규모의 해외 SOC 펀드를 조성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한국의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아세안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매료되어

아세안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해외점포 진출현황('15.3월) : 아세안(107개), 중국(68개), 미국(51개)

특히 국내은행들은

전체 아세안에 진출한 금융회사 중

절반 가까이 차지(48개)하는 등

한-아세안 금융협력의 선봉장으로서,

현지기업 금융지원, 현지인 고용확대 등

현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장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현지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발굴 노력을 지속하는 등
한-아세안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세안 대사님들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한 경험이 있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IV. 맺음 말씀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는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SEAN회원국과 한국은
CMIM* 협약 체결 등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ASEAN + 3(한·중·일) 회원국에 위기 발생 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10.3월 발효, 현재 2,400억 달러 규모)

특히 ‘15년 말로 예정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투자·인력·서비스·상품 등 단일시장 조성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경제협력체

이러한 시점에
아세안 각 국 대사님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ause]

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처서(處暑)였습니다.

농사에서는 처서 무렵의 날씨가
한해의 풍흉(豐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처서에 맞추어
오늘 개최된 아세안 대사님들과의 첫 만찬이
한국과 아세안 간 금융협력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